

13~14세기 元의 목축문화 유입과 제주사회의 변화

진영준*

I. 머리말	III. 몽골 문화의 제주 사회 유입과 적용
II. 고려시대 탐라목장의 설치와 원의 목축문화	1. 몽골인의 제주 이주와 중산간 마을의 형성
1. 탐라목장 설치 이전의 제주 사회	2. 언어·민속으로 본 문화적 친연성
2. 원의 목축문화 유입과 사례	IV. 맺음말
3. 원 지배 이후의 탐라목장과 변화	

I. 머리말

제주도는 말을 키우기 적합한 자연환경과 元 복속기에 설치되었던 탐라목장과 목축문화의 유입으로 사회 변화의 다양성을 보여 왔다. 특히 고려-조선시대는 진상마의 가치가 높아 중앙 정부로부터 그 진가를 인정받는 등 제주의 말 사육은 중요한 생업 중 하나였다.¹⁾

고려가 원에 복속된 이후, 원의 탐라목장 설치와 대규모 운영은 제주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는 탐라총관부를 돌려받을 때까지 100여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제주 사회는 풍습이나 복식 및 음식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는 상당량 축적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元이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아 목장을 경영함으로 인한 제주 사회의 변화에 주목한 연구와,²⁾ 몽골과 탐라가 습속이나 언어 면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두 지역을 비교하는 연구³⁾ 등은 몽골문화의 변용과 적용이라는 측면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원의 탐라 목장 설치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제주 목마장의 역사와 馬政史에 관련한 연구도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⁴⁾

제주에 원의 국립목마장이 설립된 이후에 유목민족인 몽골족이 이주하면서 제주

*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중앙 정부에 진상되었던 말은 그 용도에 따라 御乘馬(임금이 타는 말), 軍馬(전쟁용 말), 驛馬(교통, 통신에 쓰이는 말), 馱馬(운반에 쓰이는 말), 輓馬(수레를 끄는 말), 卜馬(짐을 운반하는 말), 農馬(농업에 이용되는 말), 駕輻馬(임금의 가마를 메는 말), 白馬(연자매를 끌어 곡식을 제분하는 말), 種馬(말의 번식을 위한 말) 등이 있었다.
- 2) 강영봉, 「제주도와 몽골」, 『한·몽골 교류 천년』, 한몽골교류협회, 1995; 김일우, 『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 서귀포문화원, 2005; 고창석, 「麗·元과 탐라와의 관계」, 『제주도사 연구』, 세림, 2007.
- 3) 강영봉,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 비교연구」, 『탐라문화』 20, 1999; 박원길, 「제주습속 중의 몽골적인 요소」, 『제주도연구』 28, 제주학회, 2005.
- 4)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7;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 지역의 우마사육」, 『사학연구』 78, 2005; 고창석, 「元대의 濟州道 牧場」, 『濟州史學』 1,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1985.

의 목축문화는 큰 변화를 갖게 되었고, 실정에 맞게 적용되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이주민의 문화가 제주문화와 혼용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화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13세기 이후 제주사회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의 탐라목마장 설치와 그에 따라 유입된 원의 목축기술이 제주의 목축문화가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 살펴보고, 탐라목마장이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화적 변용에 대해 언어, 민속을 중심으로 고려와 원 문화의 친연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고려시대 탐라목장의 설치와 원의 목축문화

1. 탐라목장 설치 이전의 제주 사회

원이 제주에 탐라목장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제주의 말 사육은 이미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제주도의 자연 조건이 다른 지역보다 목축에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과 비교하여 제주지역은 기후가 따뜻하고 강수량이 풍부하여 목초 생산량이 많고 연중 방목이 가능하다는 점과 넓은 목초지와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용수는 목축을 더없이 적합한 장소였다.⁵⁾ 다음의 사료는 제주 지역에 목마장 설치 이전부터 말 사육이 성행하였음을 보여 준다.

① 제주도의 옛 풍속에 무릇 남자가 15세 이상이 되면 해마다 콩 10곡을 바치고, 衙門의 아전 수백 명은 해마다 각각 말 한 필을 바쳤다. 부사와 판관이 받아서 나누어 가지니, 이 때문에 이 고을을 맡은 자는 비록 가난한 자라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⁶⁾

② 제주에서 공물로 바친 말과 최의가 기르던 호마를 4품 이상의 문·무관들에게 나누어주었다.⁷⁾

③ 제주에서 바친 말을 4품 이상 문·무 관원들에게 하사했다.⁸⁾

④ 金之錫의 世系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고종 말에 제주 부사가 되었다. 관아의 아전 수 백인이 각각 해마다 말 1필을 바치는 바, 부사와 판관이 이를 나누어 받는 까닭에 비록 가난한 자라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 井奇와 李著란 두 사람이 있어 일찍이 이 주의 수령이 되었는데 모두 뇌물 받은 죄에 걸려 면직되었다. 김지석이 주에 도착하자 그 날로 콩과 말의 공납을 면제시키고 청렴한 10인을 뽑아 관아의 아전에 충당하니 정사가 맑은 물과 같고 관리와 백성이 친애하고 복종하였다.⁹⁾

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축산사』, 제주특별자치도, 2007, 109쪽.

6) 『高麗史節要』 권17, 고종 46년 10월. “濟州舊俗 凡男年十五以上者 歲貢豆一斛 衙吏數百人 各歲貢馬一兀 副使判官受而分之 以故凡宰州者 雖貧皆致富”

7) 『高麗史』 권24, 고종 45년 5월. “壬戌 以濟州貢馬及崔埴所畜胡馬 分賜 文武四品以上.”

8) 『高麗史』 권25, 원종 1년 7월. “乙亥 以濟州貢馬, 賜東西四品以上”

9) 『高麗史』 권121, 열전 34, 김지석. “金之錫未詳其世係. 高宗末爲濟州副使 州俗 男年十五以上歲貢豆

앞의 사료에서와 같이 제주의 말은 일찍부터 貢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 과정에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하였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④에서와 같이 고종 말에 제주부사로 부임한 金之錫은 제주도의 풍습으로 행해지던 말의 공납을 면제시키는 조치를 시행하고 청렴한 관리를 새로 선발하였다는 사례에서 당시 제주 공마의 폐단을 척결하고자 하였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

⑤馬畜滋長別監을 설치하였다. 이보다 앞서 여러 섬에 말들을 방목하여 번식시키고, 튼튼한 것을 가려내어 상송국에 충당하게 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諸王과 宰輔, 문무신료에게 나누어 내려 주었는데, 탐라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역적의 난리가 있고부터 원나라에서는 도민들로 하여금 육지에서 살게 하고, 탐라는 따로 원나라에 소속시키니, 마축이 번성하지 못하여 세공이 매우 적어졌다. 나라에서는 친히 조현하거나 정벌을 도울 일이 있으면 외관으로 하여금 말을 바치게 하고, 또 품계에 따라 백관에게 거두며, 외군의 양마를 빼앗기까지 하니, 안팎에서 이를 고통스럽게 여겼다. 조정에서 의논하기를, “만약 관을 설치하여 암말[牝馬]과 암소[牝牛]를 뽑아 번식시키게 하면, 장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니, 이런 명이 있었다.¹⁰⁾

⑤에서는 당시의 馬政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시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섬에서 내는 말 세금 가운데 탐라의 납부량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탐라가 원의 직할령으로 소속된 후에는 고려가 탐라의 말을 거둘 수 없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말 수요량 충당에 차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따라서 사료에서 보듯이 탐라는 원의 목마장 설치 이전에도 이미 중앙 정부에 공마를 납부하고 있었고, 그 비중도 타 지역에 비해 컸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원의 탐라목장 설치 이전에도 제주에서는 말을 많이 사육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를 확인한 원의 의도대로 황실목장 소속의 탐라목장 설치는 목축문화가 번성했던 몽골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2. 원의 목축문화 유입과 사례

제주의 말 사육과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체계적인 말의 관리가 이루어진 것은 원의 탐라목장 설치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원나라는 제주도를 일본과 남송을 정벌하기 위한 전략기지로써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

一斛 衙吏數百人各歲貢馬一匹 副使判官分受之 以故守宰雖貧者 皆致富 有井奇李著二人 嘗守是州 俱坐贓免 之錫到州 日即鑿貢豆馬 選廉吏十人 以充衙吏 政清如水 吏民懷服.” 『高麗史節要』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10) 『高麗史』 권82, 兵志36, 馬政. “十四年二月 置馬畜滋長別監 先是 放馬於諸島 使之蕃息 簡出壯者 以充尙乘 其餘 班賜諸王宰輔文武臣僚 而耽羅之出居多 自逆賊之亂 元令島民陸居 而耽羅別屬於元 馬畜不繁 歲貢甚少 國有親朝助征之事 令外官獻馬 又品斂百官 而至奪外郡良馬 內外苦之 朝議以謂 “若置官選牝馬牝牛 使之蕃息 則可備將來” 於是 有是命.”

11)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지역의 우마사육」, 『사학연구』 78, 2005, 85쪽.

⑥耽羅는 高麗의 위성국이다. 世祖가 高麗를 臣服시키고서 耽羅가 南宋과 日本의 요충지임으로 해서 주목하였다.¹²⁾

⑦至元 6년 7월에 明威將軍 都統領 脫脫兒·武德將軍 統領 王國昌·武略將軍 副統領 劉傑을 파견하여 耽羅 등지의 도로 사정을 살피게 하면서, 高麗國王 王禎에게 안내하는 관리를 선발하여 보내주도록 명하였다.¹³⁾

위의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원 세조는 제주를 일본과 남송정벌을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관심을 갖게 된다. 쿠빌라이가 3명의 사신을 고려에 파견하였던 목적은 장차 南宋과 日本을 정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의 파견에서 탐라 증지의 바닷길을 살피게 하였는데, 이는 海島 요충으로서의 탐라에 대한 세조의 관심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당시 탐라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高麗史』 원종 원년 2월조에 ‘제주는 海外巨鎮으로 松商과 島倭가 수시로 내용하는 곳이었다.’고 지적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日本·宋을 내왕하는 선박들의 중간 기항지로서 탐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¹⁴⁾ 원나라는 고려로 하여금 정벌에 필요한 군사와 선박을 징발, 건조하게 하였고 두 나라를 정벌하는데 있어서 가장 편리한 해로를 사전에 답사하게 된다. 특히 원은 탐라에 배를 건조하는 일을 명하였는데 이는 당시 제주가 선박 건조용의 목재가 풍부했다는 것과 건조 기술에 있어서도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당시 탐라의 해로가 남송이나 일본으로 가는데 매우 수월한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감안하여 탐라에 선박 건조를 명했을 것이다.¹⁵⁾ 이와 같이 원은 제주를 군사요충지로 이용하기 위해 시찰한 후 제주의 자연환경이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군사에 이용할 말을 키우고 보내는 것에도 적합한 장소라는 판단 아래서 제주를 군마공급지로 이용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분리시켜 직할령으로 삼고 탐라총관부와 국립 목마장을 설치함으로써 100여 년의 장기적인 직접 통치를 추구하였다.

⑧원나라가 다라치(塔刺赤)를 탐라의 다루가치(達魯花赤)로 임명해 보내면서 말 160필을 들여와 기르도록 했다.¹⁶⁾

원은 충렬왕 2년에 塔刺赤을 탐라총관부의 達魯花赤으로 임명하여 말 160필을 제주에 보내와서 설치된 탐라목장은 당시 원이 설치한 14개의 국립목장 중 하나였다.¹⁷⁾ 이어 충렬왕 3년에는 목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동·서에 아막¹⁸⁾을 설치하였는데

12) 『元史』 권208, 「外夷列傳」 95.

13) 『元史』 권208, 「外夷列傳」 95.

14) 고창석, 「원고려기사 탐라관계 기사의 검토-13세기 탐라와 원과의 관계-」, 『경북사학』 21, 1998, 455쪽.

15) 김창현,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1998.

16) 『高麗史』 권28, 충렬왕 2년 8월 정해.

17) 14개의 국립목장은 東路 折連怯呆兒(바이칼호 동쪽), 玉你伯牙·上都(북경), 哈喇木連, 阿刺忽의 馬乞, 斡金州, 阿察脫의 不罕, 甘州, 左手의 水平, 右水의 固安, 雲南·亦奚卜薛, 蘆州, 益都, 火里秀麻(지금

이때의 동아막은 지금의 성산읍 수산리 일대로 동부지역을 관장하게 하였고, 서아막은 지금의 한경면 고산리 일대로 서부지역을 관장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동서 두 곳에 아막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목장이 전도적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후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동·서도현을 설치하는 기초가 되었다.¹⁹⁾ 탐라목장에서는 몽고에서 보내온 胡馬와 함께 재래종인 土馬를 함께 키우며, 좋은 말은 가려내어 왕실의 어승마로 보내거나 관리들에게 하사하거나 원나라에 보내었다. 원은 처음에는 말만 보내왔으나 소, 낙타, 나귀, 양, 개, 고라니, 매 등도 계속 보내어 기르게 하였다.²⁰⁾ 따라서 제주도에는 마목장 이외에도 소를 기르는 牛牧場, 돼지를 기르는 豬圈, 양을 기르는 羊棧, 고라니를 기르는 鹿場 등이 설치되었다.

원에서 탐라에 보낸 마필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는 아래 사료에 있는 원의 징마 사례를 살펴보면 그 수량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⑨ 탐라사람 쿠케다이(曲怯大), 몽쿠다이(蒙古大), 타쿠바투(塔忽拔都) 등이 원나라에 가서 말 4백 필을 바쳤다.²¹⁾

⑩ 원나라에서 바이티무르(伯帖木兒)를 탐라로 보내 말을 징발해 갔다.²²⁾

⑪ 원의 태복시(太僕寺)에서 이가노테무르(李家奴帖木兒)와 안바안부카(安伯顏不花)를 보내 탐라의 말을 수집했다.²³⁾

⑫ 탐라만호 문아단부카(文阿但不花)가 자기 동생 문인부(文仁富)를 보내 양과 말을 바쳤다.²⁴⁾

또한 『高麗史』 공민왕 23년 4월 무신조의 기사를 통해 명이 탐라의 징마를 요구하면서 원이 과거 목마장을 관리할 당시 원에서 제주목장에 2~3만 필을 보내왔다는 내용을 통해 당시 제주에서 길렀던 말의 수량을 추정해 볼 수 있다.

⑬ 과거 사막을 정벌하러 갈 때 길이 험하고 멀어 많은 군마를 잃은 경험이 있다. 지금 다시 대군이 원정길에 오르는데, 내 생각에 고려국은 앞서 원나라 시절부터 말 2~3만 필을 탐라에 남겨두고 사육했으니 지금은 필시 많이 번식했을 것이다. 중서성에서는 공문을 휴대한 사자를 고려로 보내 국왕을 잘 설득해 좋은 말 2천 필을

의 몽골 이복), 高麗의 耽羅 등이다.

18) 아막은 부대·조합·단체 또는 州郡을 뜻하는 몽골어 아이마그(aimag)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 말에 몽골의 영향을 받아 생긴 관직명이다(고창석, 『탐라국시대사』, 서귀포문화원, 2007, 111쪽).

19) 제주도 문화예술과, 『제주도 제주마』, 시민당, 2002, 66쪽.

20) 『元史』 권100, 지48, 병3, 마정.

21) 『高麗史』 권31, 충렬왕 20년 5월 갑인조.

22) 『高麗史』 권31, 충렬왕 21년 3월 경오조.

23) 『高麗史』 권37, 충목왕 3년 8월 무인조. “戊寅 元太僕寺遣李家奴帖木兒·安伯顏不花來 取耽羅馬.”

24) 『高麗史』 권40, 공민왕 12년 6월 무신조. “戊申 耽羅萬戶 文阿但不花遣弟仁富 獻羊馬.”

가려 보내게 하라.²⁵⁾

원나라는 제주를 예속하여 그들의 관리에 두었다. 충렬왕 20년과 31년에 일시적으로 그 권한을 돌려준 바 있으나, 목장만은 100여 년 동안 원이 직접 관리한 것을 통해 원이 탐라목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원의 탐라 국립목장 설치의 제주말 사육과 규모면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유목민족인 몽골의 독특한 목축문화를 제주도에 유입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목마장 설치 이전에도 제주의 재래마가 조정에 진상되었으나 제주말이 유명하게 된 것은 탐라의 목마장 설치이후 원으로부터 들어온 胡馬가 전래되면서부터이다. 호마는 韃靼馬(몽고마)와 大宛馬(서역마)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이러한 호마가 전래된 것은 제주말의 품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전부터 전해진 토종마인 土馬와 胡馬의 교접을 통해 혼혈종이 산출되었고, 혼혈종 가운데에는 재래종보다 약간 큰 土馬가 생산되어 원나라에 수출되었다.²⁶⁾

또한 원이 제주에 탐라 목마장을 설치하면서 말을 다루는 기술이 능한 몽골인 牧子를 제주에 함께 파견하면서 제주의 목축문화는 큰 발전을 꾀하게 된다. 이들은 시기별로 목초가 풍부하게 나는 지역을 찾아 말 등을 몰고 다니며, 제주의 전 지역을 방목지로 사용하였다.²⁷⁾

⑭ 제주에는 기르는 말이 많아서 1만여 필에 이른다. 전에 본도는 지역이 따뜻해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다. 이 해에는 추위가 심하고 눈의 깊이가 5~6척에 이르니 말이 많이 얼어 죽었다.²⁸⁾

사료에서와 같이 겨울에 쌓인 눈의 깊이가 5~6척되는 곳은 제주에서 중산간지대나 되어야 가능한 일이며, 주에서 중산간 지대 이상에서도 우마를 방목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시기가 최영이 제주의 목호의 난을 평정한 1374년으로부터 50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중산간 지대 이상에서도 방목이 이루어지는 우마의 사육방식은 하치가 제주에서 우마를 사육하는 방법으로 한라산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우마 등을 방목하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행해졌을 것이라 주장한다.²⁹⁾

한편, 제주도에서는 목마 종사자들을 ‘테우리’라고 부른다. ‘테우리’란 말은 ‘모으

25) 『高麗史』 권44, 공민왕 23년 4월 무신조. “戊申 帝遣禮部主事 林密 孳牧大使 蔡斌來 中書省咨曰 欽奉聖旨 ‘已前征進沙漠 爲因路途窳遠 馬匹多有損壞 如今大軍又征進 我想高麗國 已先元, 曾有馬二三萬 留在耽羅牧養 孳生儘多 中書省差人 將文書去與高麗國王 說得知道 教他將好馬揀選二千匹送來.’”

26)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86쪽.

27) 김일우, 앞의 글, 2005에서는 원이 탐라목장을 설치하기 이전에도 제주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해안지대에 우마를 방목하여 길렀을 것으로 보여지나, 중산간 지대 이상에서 우마를 방목하게 된 것은 하치(牧子)가 들어온 뒤에 생겨난 목마기술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8) 『世宗實錄』 권14, 세종 3년 12월 무오조. “濟州牧馬 多至萬餘匹 前此 本島地暖 冬無積雪 是歲寒甚 雪深至五六尺 馬多凍死.”

29) 김일우,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15호, 고려사학회, 2003, 50쪽.

다'라는 뜻을 지닌 중세 몽골어에서 유래된 것이다.³⁰⁾ 몽골족의 경우 전통적으로 유목지로 적합한 몽골고원에서 농경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채 가축에 의존해 생필품을 구하는 유목생활을 영위하였고, 농경민과의 거래를 통해 곡물을 얻었기 때문에 농경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 반해 제주인들은 전적으로 목축에 의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반농반어 혹은 반농반목의 형태의 생활을 영위하였다.³¹⁾ 때문에 테우리들이 하는 일도 마소를 관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농사일에도 활용했을 것이다. 테우리는 말뚝을 부리는 것을 이용하여 보리를 거두어들인 자리에 밭을 갈아엎고 좁씨를 뿌린 후, 이 때 좁씨가 땅에 잘 심어지도록 말뚝을 밭에 몰아넣어 씨 뿌린 밭을 밟게 하는 '조밭 밟음'을 했다. 또한 보리경작을 잘 되게 하려고 밤에 마소 떼를 밭 안에 몰아넣어 그 분노를 받아 거름이 되게 하였는데, 이를 '바령흔다'라고 하고 이런 밭을 '바령팻'이라 하였다.³²⁾ 이는 밭을 모는 기술을 농경에 이용한 것으로 농경이 필요했던 제주도에서 테우리들이 마소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생활환경에 맞게 변화함에 따라 생겨난 하나의 목축문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제주민들은 하치를 통해 몽골족의 말을 다루는 다양한 방식을 전수받게 된다. 먼저 마소의 구분을 위해 엉덩이 부위에 낙인을 찍는 것이 하치를 통해 유래했을 것이라 추측되고 있다. 또한 하치들은 말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전통 습속까지 가져오게 된다. 말이 가쁜 숨을 몰아쉬 수 있게 말의 콧구멍을 찢는 법은 몽골족들이 말의 호흡량이 많아져 말이 잘 달릴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인데, 이 습속 역시 하치들에게 전수된 방법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말의 콧구멍을 찢는 것을 관습적으로 행하고 있다.³³⁾ 또한 말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세 개의 다리를 묶는 법 또한 당시 전수된 목마기술로 보인다. 이 방법을 제주에서는 '지달쓰다'라고 하는데 '지달'이란 용어는 몽골어 '치도르(앞의 두발과 뒤의 한발을 묶는 끈)'의 어휘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³⁴⁾

몽골 유목민족들은 가축의 나이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다. 그 가축들은 말뿐만 아니라 낙타, 소, 양, 염소에까지 이르는데 그들은 가축의 암수 역시 구분하며 나이에 따른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몽골족들은 인간의 나이에 못지않게 가축의 나이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³⁵⁾ 이는 유목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축을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하여 가축의 생태적인 변화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제주사회에 남아 있는 것은 문화적 파급력이 매우 지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0) 박원길, 「제주습속 중의 몽골적인 요소」, 『제주도연구』 28집, 제주도연구회, 2005, 228쪽.

31)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지역의 우마사육」, 『사학연구』 78, 2005, 98쪽.

32)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438-439쪽.

33) 장장식,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 민속원, 2005, 30쪽.

34) 강영봉, 「제주도와 몽골」, 『한·몽골 교류 천년』, 한몽골교류협회, 1995, 31쪽.

35) 박환영, 「몽골문화 속의 시간민속 고찰」, 『중앙아시아 연구』 8, 중앙아시아 학회, 2003, 119쪽.

<표1. 제주마 연령에 따른 칭호³⁶⁾>

연령	말	말의 나이	연령	말	말의 나이
1	금승마	하릅	6	육수매	여습
2	이수매	이듭	7	칠수매	이릅
3	삼수매	사릅	8	팔수매	여듭
4	사수매	나릅	9	구수매	아습
5	오수매	다습	10	십수매	열릅

아울러 몽골과 제주의 목축문화 중 독특하면서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소의 분뇨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초원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 유목민족은 산림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연료를 구하는 것이 힘들었다. 따라서 몽골족은 초원에 버려진 말이나 소의 분뇨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몽골지역은 습기가 없는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초원에 놓인 가축의 분은 냄새가 나지 않을뿐더러 바짝 말라 섬유질 덩어리로 변한다. 또 연기가 적어 강한 바람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 강한 화력을 발휘한다.³⁷⁾ 제주도에서도 역시 마소의 똥을 연료로 사용하였다. 말똥에 비해 소똥이 불이 더 잘 붙고 화력이 강했기 때문에 말똥은 주로 불쏘시개로 이용하였고, 소똥이 주된 연료로 사용되었다. 제주민들도 길가에 있는 소와 말의 똥을 줍고 그것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하였다. 우마의 분은 서서히 타는 성질이 있어 오랫동안 난방을 유지할 때 이용되었다.

탐라목장의 설치로 몽고의 목축문화가 유입되면서 자연스레 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용식물도 함께 전래되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된다. 이 풀은 몽골의 ‘달란 톨고이’라는 풀로 이것이 제주도의 ‘피뿌리풀’이다. 몽골에서는 이 풀이 말이 다쳤을 때 치료용으로 쓰이는 풀로 몽골과 만주 등지에서 자라는 풀이다. 이 피뿌리풀은 몽골 초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풀인데 처음으로 제주에 몽골식 목장이 설립되었던 수산평 근처에 많이 자라고 있다는 점에서 탐라목장 설립당시 몽골인들이 말의 치료를 위해 제주에 들여온 풀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또한 제주의 대표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조랑말’의 기원자체가 원의 목축문화 유입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말은 태어난 지 3년이 되면 조련을 시작한다. 말의 훈련 중 걷기 훈련이 가장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말의 걷기 훈련은 걷기·측대보·속보·구보·질주 등으로 구분된다. 이 주법 가운데서 측대보는 오른쪽 앞다리와 뒷다리가 동시에 올라가고 왼쪽 앞다리와 뒷다리가 내려가는 주법으로 이런 주법을 가진 말을 몽골에서는 ‘조모모리’라고 한다. 제주도의 조랑말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³⁹⁾ 조모모리 상태에서 뒤를 돌아서 활을 쏘는 기술을 ‘파르티안 샤프트(Parthian shaft)’라 한다. 이는 북방 유목민족들이 잘 사용했던 방법으로 그들

36)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107쪽.

37) 장장식,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 민속원, 2005, 31쪽.

38) 박원길, 「제주습속 중의 몽골적인 요소」, 『제주도연구』 28집, 제주도연구회, 2005, 227쪽.

39) 장장식, 『몽골에 가면 초원의 향기가 난다』, 민속원, 2006, 255쪽.

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이 측대보 주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의 탐라목마장 설치 이후 제주는 몽골인인 목자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목축기술을 받아들이고 변형시켜가면서 제주의 목축문화를 형성해 나갔고, 또한 다양한 馬種子를 생산시켜 나감으로써 제주의 목축에 큰 변화와 발달을 가져왔다.

3. 원 지배 후의 탐라목장과 변화

원의 지배가 끝나고 명이 중국을 지배한 후 고려는 명이 원이 설치한 목장과 몽고인인 목자들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것에 대비하여 먼저 명에 三司左使 姜師贊을 보내어 교섭하였다.

⑮ 탐라는 고려가 개국한 이래 州를 설치해 牧使를 수령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원나라와 외교를 맺은 후로는 그 조정에서 이 섬을 목마장으로 사용했으나 이는 단지 섬에 사료용 풀과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했을 따름이며, 영토는 예전과 다름없이 고려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중략) 과거 원나라 조종의 太僕寺·宣徽院·中政院·資政院에서 방목하던 말과 노새 등의 경우 제주관리로 하여금 원래의 문서에 의거해 원주민들에게 맡겨 기르게 한 다음 때맞추어 상국으로 바치게 하십시오. 달달목자들의 경우 또한 우리나라로 하여금 잘 달래어 양민으로 편입시키게 해 주신다면 상국 조정에서 말의 조달을 맡고 있는 관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들의 생업도 적이 안정될 것입니다.⁴⁰⁾

탐라는 본래 고려에서 주를 설치해 다스렸던 곳인데 원은 탐라에 목장만 건설하였을 뿐이며 여전히 고려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원에서 방목하였던 말과 노새 등은 전에는 몽고인들이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제주인들이 관리할 것이며 몽고인 목자들 역시 고려의 양민으로 삼도록 해주도록 명에 요청하였다. 또한 이 요청을 받아준다면 시기에 맞추어 명에 말을 진상할 것이라고 하였다. 명 역시 북원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군마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군마를 제주도의 말로 받아들임으로써 충당하기로 하였고 제주는 명의 군마공급지가 되게 된다.

그러나 명에 제주말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몽골인 목호들이 반대를 하게 된다. 그들은 명에 보낼 말을 간택하러 온 관리들과 병사들을 살해하는 사건이⁴¹⁾ 발생한다. 사건이 정리되고 명에 마필을 보내긴 하였으나, 명의 마필 요구량은 증가하였다. 목호들은 원세조가 양축한 말을 명에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명에서 요구한 마필의 양을 다 채우지 않고 마필을 보내며 저항하였다.⁴²⁾ 이에 공민왕은 목호의 반란과, 탐라에 있는 원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門下贊成事 최영으로 하여 목호를 정벌할 것을 명한다.⁴³⁾ 목호의 난은 같은 해 8월에 최영이 이끄는 정벌군에 의하여 평정되었

40) 『高麗史』 권42, 공민왕 19년 7월 갑진조.

41) 『高麗史』 권43, 공민왕 21년 4월 임인조.

42) 『高麗史』 권44, 공민왕 23년 7월 을해조.

43) 『高麗史』 권44, 공민왕 23년 7월 기축조.

고 명의 마필 진상요구는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탐라목마장 설치 이후 제주가 말 명산지가 되어 많은 대량의 마필 진상의 폐단과 문제가 있긴 했으나 탐라목마장의 목장 조직은 조선시대 목장조직의 기초가 되었다. 고려 말 동서아막에 배치되어 있는 목장은 각각 4개씩으로 총 8개였고 이 8개의 목장은 조선 초기 10소장의 기반이 되었다. 원이 설치한 탐라목마장은 해안 평야지대에 설치되어 민가의 농작물 피해가 많았다. 이에 세종 11년에 제주출신 上護軍 고득중은 목장을 한라산 중턱일대에 건설할 것을 건의하였다.⁴⁴⁾ 그는 제주에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개간으로 농사짓는 지역이 확대되자 목초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라산 산림에 말과 소를 놓아길러 말의 생산과 동시에 민생안정을 위해 평지에 농경지를 확보하여 농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산간 지대에 목장을 짓는 것을 건의하였다.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져 한라산 기슭 사면에 목장을 축조하여 제주도 목장이 10소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시초를 열었다. 그리하여 한라산에 잣성을 쌓기 시작하였고 목장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 바깥으로 이주시키는 등 목장과 사람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지역을 양분해 나갔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목장안의 물과 풀이 부족하고 돌담을 쌓음으로 말이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해 말이 여위는 등 목장업이 쇠퇴했다는 이유로 세종 16년 고득중을 파직시켰다.⁴⁵⁾ 그러나 그는 목장업이 쇠퇴한 것은 돌담을 쌓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뭄에 의해 목초가 부족하였고, 우마를 도살하는 도둑을 우려해 목자들이 우마를 몰고 다닌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⁴⁶⁾ 세종은 다음해 그를 복직시켰다.⁴⁷⁾ 이러한 과정을 거친 조선전기의 10소장 건설은 조선 국립목장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

Ⅲ. 원의 목축문화 유입과 제주사회의 변화

1. 몽골인의 제주 이주와 중산간 마을의 형성

몽골인이 제주에 집단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원이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은 1273년(원종 14)부터이다. 고려가 몽골의 직할령화가 이루어졌던 지역 중 雙城總管府와 東寧府에 대한 몽골 지배는 지역의



그림 1) 한남리 열녀 정씨 묘비

44) 『世宗實錄』 권45, 세종 11년 8월 경자조.

45) 『世宗實錄』 권64, 세종 16년 6월 갑자조.

46) 『世宗實錄』 권64, 세종 16년 6월 을해조.

47) 『世宗實錄』 권67, 세종 17년 2월 무신조.

토착세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원은 제주를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상당수의 몽골인이 제주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제주 여성과의 통혼도 이루어졌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제주 사회를 집권한 몽골인과 제주 여성의 결혼은 드물지 않은 추세로 나아갔을 것이다. 이는 곧 半몽골족화의 제주 사람들도 몽골족과 제주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성장할 정도로 몽골인 부락의 규모도 꽤 큰 편이다.

몽골이 제주를 직할령으로 삼고 마목장을 설치하면서 제주의 인구는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몽골이 제주를 직접 지배하고자 하여 상당수의 몽골족이 제주에 정착하면서였다. 몽골은 鎭守軍이란 명목으로 군사 700명을 파견·주둔시키고 몽골족 관인도 보냈다.⁴⁸⁾ 또한 본국의 죄수 170여 명도 1277년(충렬왕 3) 이전에 제주로 왔으며⁴⁹⁾ 왕족·관료 등이 제주에 유배되기도 하였다. 특히 몽골족 중 ‘하치’의 배속은 목마장 설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고 그 수는 제주 목마장이 원의 14개 국립목장 중 하나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는 훨씬 더 늘어났다. 또한 이들의 상당수는 몽골이 멸망한 후에도 제주에 남아 정착하면서 목마를 관리하였다. 이들은 목마장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착해 나갔을 것이다.

1366년(공민왕 15) 이후에도 몽골은 황제 順帝가 피난할 궁전을 짓기 위해 상당수의 몽골족을 제주에 보내기도 하였다.

때에 왕이 元 나라의 목수 元世를 제주에서 불러서 影殿을 짓도록 하니 世 등 11인이 가족을 데리고 왔다. 어느 날 世가 都堂에 말하기를, “원 황제가 토목 일을 일으키기 좋아하여 민심을 잃고, 스스로 천하를 보전하지 못할 것을 알고, 우리들에게 명하여 耽羅에 궁전을 지어 피난하려는 계책을 삼고자 하였으나,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원이 망했습니다. 우리들은 衣食을 해결할 방도를 잃었는데, 지금 불러와 의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다행스럽습니다.”⁵⁰⁾

원 황제는 천하를 보전하지 못할 것을 예지하고 목수 元世를 미리 제주에 파견하여 궁전을 짓도록 하였다. 원 황제가 제국이 멸망하였을 때에 제주로 피난하려 하였다면 이미 제주에는 몽골족이 대다수이고, 훗날을 기약할 만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몽골에서 대표되는 국립목장의 존재와 제주를 통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1273년(원종 14)부터 제주에 오기 시작했던 몽골족이 공민왕대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이 모여 사는 ‘部落’을 이미 이루었을 정도로 상당수가 장기간 거주하거나 정착하고 있었다.⁵¹⁾ 그리고 제주를 ‘樂土’로 여길 정도로 제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었다.⁵²⁾ 이러한 몽골족의 상당수가 제주에 와서 살면서 정착해 갔음은 제주의 姓氏本貫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제주에 이주한 몽골족의 본관을 ‘大元’이라 칭하였는데

48) 『高麗史』 권104, 例傳, 金方慶; 『元史』 권8, 本紀, 世祖 10년 6월.

49) 『高麗史』 권28, 世家, 忠烈王 원년 3월·3년 5월·3년 8월.

50) 『高麗史』 권41, 世家, 恭愍王 18년 9월.

51) 『明太祖實錄』 권75, 太祖 5년 7월.

52) 『高麗史』 권43, 世家, 恭愍王 21년 9월.

조선후기까지도 전해져 왔다.

『東國輿地勝覽』이 편찬된 16세기 전반까지 元을 本貫으로 삼는 제주 지역 주민들의 성씨는 趙·李·石·肖·姜·鄭·張·宋·周·秦 등 10개 성씨와 운남에서 유입된 梁·安·姜·對씨이다.

제주지역 호적중초의 대원 본관 실태를 파악한 김동진의 연구에 의하면, 제주 읍지류에 나타나는 성씨 외에 康·佐씨가 추가되었고, 읍지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洪·徐·車씨 등이 확인되었다.⁵³⁾ 그리고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제주 지역에서 몽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버리지 않고 호적 작성시 그들의 본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골 후손들은 제주가 몽골의 영향 하에 있던 13~14세기에 제주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면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1367년 최영 장군의 목호 토벌과 조선의 친명 정책으로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다. 그리고 조선 초·중기에는 유배 정치인과 그 후손에 의한 입도조의 확대로 제주에서는 향촌 주도세력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권력을 형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元 本貫 가문들이 19세기 중·후반까지 本貫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속시켜 나갔다는 점은 제주와 몽골이 지배·피지배층의 관계를 넘어서는 역사적 특성으로 주목될 수 있다.

이러한 제주 사회의 변화 양상과 함께 제주 목축업의 발달은 중산간 지대에 마을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의 마을은 주로 해안지대를 끼고 이루어져 있었다.⁵⁴⁾ 제주의 농업생산력은 매우 낮아 농경만으로는 생활해 나갈 수 없을 정도여서 제주 사람들은 대부분이 半農半漁 형태의 생업 활동을 하였다. 더구나 제주는 농경에 가장 양호한 토양과 물을 구할 수 있는 곳도 해안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편이다. 제주 지역에서는 마을 형성이 해안지대에 우선적으로 나타났음이 이해되어진다. 반면 제주 중산간 지대는 마을이 대체적으로 14세기 초 무렵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⁵⁵⁾ 이 시기는 몽골이 제주를 14개 국립목장 중 하나로 간주할 만큼 우마 사육이 번성하였던 때이다. 결국 중산간지대의 마을 형성은 제주 사람들이 농경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해안지대에서 떨어져 거주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목마장의 운영으로 인한 우마 사육의 확대 등 목축업의 성장과 이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우마 사육규모의 확대와 아울러 ‘하치’와의 교류를 통해 얻은 우마 사육방식의 경험은 조선시대 이후에도 제주 사람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이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옛말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목축업의 발달과 함께 산촌 형성도 더욱 가속화 되어 제주 마을은 半農半漁 형태를 띠는 海村, 半農半牧 형태를 띠는 山村으로 구별되기에 이르렀다.

해안 생활에 익숙한 제주 사람들이 목축업을 위해 중산간 마을을 형성하면서 생

53)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 호적중초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 가문의 사례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권 2호, 2010년.

54) 『高麗史』 권44, 世家, 恭愍王 23년 4월조.

55) 김일우, 앞의 책, 2005, 256쪽.

활 문화도 변화하였다. 목축 기술은 물론이며 몽골인의 의식주에 이르는 생활 문화에 이르기 까지 제주로 이주한 몽골인의 문화는 자연스럽게 제주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며, 이는 곧 제주 문화에 융합되어 갔다. 특히 이러한 몽골 문화의 유입이 지배 세력의 문화적 강압이 아니라 제주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은 제주의 서민들을 통해 생활 문화 구석구석에 몽골 문화의 유입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몽골의 문화가 제주 문화에 융합되어 전해지는 이유는 이러한 문화 유입의 특징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민속으로 본 문화적 친연성

제주 방언 속에 몽골어 차용어가 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널리 알려져 왔다. 20세기 이후 몽골어 차용연구는 외국 학자들⁵⁶⁾ 사이에 먼저 알타이어속에 포함 고찰되었으며, 제주 방언속의 몽골어 차용연구는 해방 후에 최남선, 석주명 이후로 이기문, 김기선, 강영봉, 최기호 등 국문학자들에 의해 그 계통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89년 몽골 언어학자 故 하칸출로 교수는 제주의 고유 언어 몇 개를 접하고 그것이 AD 13C 동몽골 방언의 변형이라는 것을 지적한 뒤⁵⁷⁾ 제주의 고유 언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칸출로 교수가 접한 제주방언 속의 몽골어는 다음과 같다.

- (1) 정낭; 정낭은 중세 몽골어 출룽(chuálung)의 音變이며 소나 말들이 멋대로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에 길게 걸어두는 나무막대기를 말한다.
- (2) 혼저; 중세 동무 몽골어의 음변으로 “어서, 빨리”란 뜻을 지니고 있다.
- (3) 허벅; 물항아리를 뜻하는 몽골어(kobugu > xoboo)이다. 이 단어는 ‘말에게 물 먹이는 항아리’로 말 사육과 관련된 몽골인들이 가져온 단어이다.
- (4) 누루못; 누루는 호수를 뜨하는 몽골어 nagur의 음변이다.
- (5) 한라산; 한라산을 그 형태나 지리적인 위치에 있어 제주도의 기둥이요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한라산에 대해 『남사록』<地誌>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한라’ 지명의 어원에 대한 기록이 전하는데, “한라산은 주(州)의 남쪽 20리에 있는데 그 이름이 漢拏하고 한 것은 雲漢(은하수)을 만질 수 있다 해서 붙은 이름이고, 또한 이름은 頭無岳이라고 하니 그 봉우리 봉우리마다 모두 평평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름은 豆毛岳이라고 하는데 산의 연락이 한결같지 않고 峰頭에 모두 못이 있어 마치 물 담은 그릇 같기 때문이고, 圓山이라고도 하는데, 산의 모양이 중앙이 높고 사방이 쳐져내려 둥근 모습 같이 둥글기 때문이다.”고 설명하였다.

56) 自鳥庫吉(1929), Pelliot(1930), 小瘡進平(1931), G.J. Ramatedt(1935)

57) 내몽골 동부지역 태생인 하칸출로 교수는 제주 방문 때 질문을 받은 제주방언 가운데 몽골어나 그 변형이라고 간주되는 몇 단어를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哈勘楚論.<HARAI BANG의 第二故郷><蒙古文化通訊>

그러나 위의 내용 중 ‘漢拏’라고 하는 한자 지명의 어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 점에 유의하여 하칸출로 교수는 ‘한라’의 어원에 대해 위의 여러 지명 중 정상에 못이 있어 마치 그릇 같다는 뜻의 두모악과 관련지어 한라의 어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해석한 바 있다.

- ① 검은산(휴화산); 제주 방언에는 이와 음성적으로 가까운 -kalra ‘검은 색’의 몽골어 차용인 ‘가라말(검은색 말)’을 찾아 볼 수 있다.
 - ② 한(왕)과 같은 산; 몽골어에 ‘왕’의 뜻으로 사용되는 어형에는 qan, qahan, khan, Ban(중국 한자음)의 네 가지가 확인된다.
 - ③ 산 위에 호수가 있는 산
 - ④ 한 번 분출했다가 쉬고 있는 휴화산
- (6) 어리목; 어리목은 進出口·通路를 뜻하는 몽골어 oromug의 음변이다. 『몽골비사』175절에 or nug ‘절벽 입구’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곳은 징기스칸이 제국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 천호제와 만호제를 선포한 곳이며 또한 코일다르 세첸이 1204년 죽어 묻힌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지세가 험한 곳이기도 한다.
- (7) 어승생; 물이 좋다는 뜻의 몽골어 usun sain의 음변이다. 이는 ‘신성한 물’ 또는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 (8) 어후오름; 어후는 駙馬를 뜻하는 만주어로 몽골군 가운데 금나라 출신의 유력자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 (9) 소모오름; 소모는 화살을 뜻하는 sumu의 음변으로 境界를 나타내는 지대에 붙이는 경우가 많다. 예로부터 몽골민족에 있어서의 화살은 상징적인 의미로 경계를 표시하는 전통이 있어 왔다. 여기서 경계라 함은 세운 화살을 기준으로 그곳을 경계삼아 지역을 나눈다는 뜻이다. 지금의 함덕 포구 옆에 위치하는 소모오름은 1273년 여·몽연합군이 전함을 이끌고 제일 먼저 들어온 곳으로 당시 가장 큰 항구였던 함덕이다. 함덕포구로 들어온 몽골군은 바로 옆에 위치한(소모오름)을 기준으로 하여 한라산까지 획을 그어 좌·우로 나누고 좌편으로 애월읍으로 진군해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 (10) 사라오름; 사라는 달을 뜻하는 sara이다.
- (11) 오라동; 오라는 技能·技巧를 뜻하는 몽골어 ura에서 유래된 것 같으며 이로 미루어 볼 경우 오라동은 이 지역에 匠人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 보여진다. 말(馬)이 들어오면 등 안장을 만드는 사람, 천막과 의상을 담당하는 사람, 이동과 야영을 담당하는 사람, 수레를 관리하고 고치는 사람 등 말에 관련이 장인들도 같이 생활하게 된다.
- (12) 아라동; 아라는 평민이나 농민을 뜻하는 몽골어 ara에서 유래된 것 같으며 이로 미루어 볼 경우 아라동은 일반백성들의 거주지라고 보인다.

(13) 산굼부리; 가운데가 아름답게 깊이 파인 비탈산이라는 뜻을 지닌 몽골어 *sain gum burgi*의 음변이다.

(14) 비바리; 비바리는 “작은”이란 뜻을 지닌 “*bichihan*”의 “*bi*”와 며느리를 뜻하는 “*bari*”가 결합되어 나온 말로 “작은 며느리”란 뜻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 말이 처녀를 지칭하는 말로 전변되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 아버지의 소실들을 아들이 이어가는 북방습속과 관련하고 있다.⁵⁸⁾

(15) 냉바리; 중국어의 年老의 年과 몽골어 “*bari*”가 결합되어 나온 말로 나이든 여자를 뜻한다. 한자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제주의 몽골군 중 한족출신자도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예이다.

한편, 한국 민속과 몽골 민속의 친연성에 대한 지적과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제주와 관련하여서도 유사와 친연성의 측면에서의 논의는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다. 석주명은 『제주도수필』(1968, 보진재)에서 몽골유품 11개 항목을 제시했다.⁵⁹⁾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모자, 의복, 신발에 모피를 사용하는 것
- ② 목마가 성하고 말을 잘 구사하는 것
- ③ 마구
- ④ 마분을 연료로 사용하는 풍습
- ⑤ 피모는 몽골모
- ⑥ 전야에 있는 석퇴(돌무더기)는 몽고의 오보와 흡사
- ⑦ 우마건의 귀를 절단한다.
- ⑧ 제견으로 사냥함
- ⑨ 바람으로 선곡하는 법
- ⑩ 요람도 몽골풍에 통한다.
- ⑪ 언어의 공통점

김태능도 『제주도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몽골유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석주명과 거의 동일한 견해이다.

- ① 마소의 똥을 연료로 사용한 점
- ② ‘가족감태’라는 개 또는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방한용 사냥모자를 만들어

58) 고대 몽골인들은 연인을 이나크(*inag*, 제주어 이낙)라 부르고 혼인을 맺은 집안을 사둔(*sadun*)이라 부른다. 비바리의 뜻을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 媿婚制에 대해 살펴보면, 『몽골비사』에 형이 죽은 뒤 형수를 아우나 중형제들이 계승하는 媿婚制의 유습이 두 차례에 걸쳐 나오고 있다. 고대의 몽골인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들은 생모를 제외한 작은어머니를 계승하며 형이 죽으면 아우가 형수를 계승하였다. 작은어머니를 계승하는 것은 주로 귀족집안의 일이며 형수를 계승하는 것은 주로 평민들에 해당된다. 동북아시아 사회에서 관찰되는 이 같은 수혼제는 당시 철저히 준수된 족외혼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형수나 後母가 과부가 되어도 본 씨족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원인은 노동력의 상실, 재산상의 문제, 姻族의 반발 때문이다. 참고로 경상도 지방의 古俗에 형이 죽으면 동생은 형수의 손을 만질 수 있지만 동생이 죽으면 형은 계수의 손을 만질 수 없다는 관습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고대 媿婚制의 잔영이다.

59) 서재철·강영봉, 「제주도와 몽골」, 『몽골·몽골사람』, 한국몽골연구회, 2001, 232-236쪽.

쓴 것

- ③ 겨울철 야외활동을 위해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점
- ④ 가죽으로 방한화를 만들어 신은 점
- ⑤ 긴대바구니로 아기 구덕을 사용한 점
- ⑥ 말 모는 소리 ‘어러러러’하는 것이 몽골의 목마업에서 유래한 점
- ⑦ 개를 데리고 사냥한 점

한편, 서재철·강영봉은 1266년 제주의 성주를 몽골로 동행한 1266년부터 1367년까지 약 100년간의 관계에서 잃은 것, 남은 것에 대해 정리하였다. 얻은 것으로는 목축법과 그 이용, 건축 기술, 금은보화의 전래, 소똥 연료, 차용어, 성씨 도래, 봉수대이며 잃은 것으로는 정신적인 피해와 공헌에 시달렸다는 점, 남은 것으로는 향파두리성, 원당불탑사5층석탑이라고 정리하면서 몽고에 관심을 갖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한국과 몽골 민속과 관련해 비교 학문적 연구 성과로 나타난 친연성에 대해 정리하고 제주민속과의 관련도 예를 들고 있다. 그 중 몽골과 한국 무속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제언하고 있다.

- ① 사제가 신관의 직접적 교령을 통하여 인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는 점
- ② 강신무인 경우 신병을 체험한다는 점
- ③ 한국의 강신무와 몽골의 모리야드족 무당은 신내림에 빙의 현상을 보인다는 점
- ④ 뱀 신앙이 숭앙되고 까마귀가 저승으로 사자로서 등장한다는 점
- ⑤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 ⑥ 뱀이 숭앙되고 까마귀가 저승의 사자로 등장한다는 점
- ⑦ 강신무들이지만 세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점
- ⑧ 신칼, 창, 삼지창, 갈고리 창, 거울, 방울 등 의식의 상징물이나 부속도구가 닮은 점

그리고 제주 무속과의 유사성 연구에 있어서 成巫의례로서의 제주 ‘신굿’과 몽골 보리야드 족의 ‘차나르’에 대한 비교 연구가 활발하다. 제주와 몽골의 무당은 강신무이면서 세습무적인 성격이 강하다. 무속의 계보가 중요하고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제주에서는 신굿을 거쳐서 완전한 무당이 될 수 있다. 이 신굿은 완성된 무당으로 태어나기 위한 성무 의식이라는 점에서 몽골 보리야드 족의 ‘차나르’와 같은 무속의례이다. 보리야드 족의 ‘차나르’는 무당의 질을 높이는 의례로 열세번의 단계를 거쳐 최고 무당이 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학습무가 될 수 있는 곳으로의 의미를 지닌다.⁶⁰⁾

60) 장장식, 「몽골 보리야드족 무속의 특징과 전승 문제」, 『한국민속학』 35, 2001.

특정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논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음식 문화를 들 수 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집단의 특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문화 경계는 언어를 구분하는 경계와도 일치하고 있다. 제주 음식문화의 특징은 발농사와 목축업 특성, 정치적 수탈과 진상, 무속 신화와 유교적 제의인 포제,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국과 물회를 말할 수 있다. 곧 제주의 음식은 구황 음식이며 간결미와 자연미를 중심으로 한 음식이라 할 수 있다. 몽골 음식은 젓과 고기가 주식으로 몽골인은 양과 소고기 등 육류 중심으로 굽기와 삶기 젓류 등을 상식한다. 식재료와 관련하여 볼 때 원나라의 식생활은 膨大雅의 『黑韃事略』에서 몽골인은 알곡밥을 먹지 않으며 토끼, 사슴, 염소, 야생마 등과 물고기를 먹는다고 하였다.

제주와 몽골의 음식문화의 유사점을 보면 첫째 가축고기, 내장, 꼬리 등 거의 전 부위를 식용한다. 둘째로 탕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몸국, 만두와 순대가 특성이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제주에서는 돼지순대를 ‘수애’라고 하며, 제주도의 몸국, 돔베고기와 함께 특징적인 지역음식이다. 셋째, 찜 요리로 순대와 만두를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조리법도 삶기, 찜, 포, 훈제 등과 연료 절약을 위하여 한 번에 다량으로 삶는 방식도 유사하다. 넷째, 육포와 어포가 발달하였다. 다섯째, 식사도구는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을 항상 패용하며 음식도구는 무쇠솥, 가마솥, 주전자 등이다. 여섯째, 몽골은 양의 젓을 상용하고 분은 연료로 썼으며 제주에서도 소와 말고기를 식용하는 한편 소똥과 말똥을 말려서 연료로 썼다.

<표1> 제주와 몽골의 교류를 통해 생성된 음식

음식명	제법 및 특징	비교	
		유사점	상이점
고소리술	-원료: 조, 보리, 수수 -제법: 탁주를 고소리에 증류 -특징: 1차증류(알콜30%) -음용: 일용주, 접대주, 제례용, 약용 가향주	-증류기 이용 증류 -음용 먹적 동일	-원료
아르키	-원료: 양, 소, 염소 등의 젓 -제법: 탈지 발효유를 증류통에서 증류 -특징: 1차증류-아르키(알콜5%), 2차-아르츠(알콜25%), 3차-호르츠(알콜40%) -음용: 접대주, 제례용, 약용가향주	-알콜도수 조절 위해 재증류	
순다리	-원료: 식은 보리밥 -제법: 보리밥+누룩+물을 1~2일 젓산발효 -특징: 알콜함량 1% 내외, 정장작용 강함. -음용: 곡물 요구르트	-저알콜 젓산발효 음료	-원료 -중균
아이락	-원료: 말젓 -제법: 말젓+스타터→각반을 1~2일 젓산발효 -특징: 자연 젓산균 사용, 알콜함량 1~2%, 정장작용 강함 -음용: 여름음료 및 기본식량	-여름철 음료	
개역	-원료: 볶은 보리가루, 물 -제법: 사발에 보리가루와 물을 혼합하여 액상, 반고체, 보리밥에 비벼먹기	-볶은 보리가루를 물에 타서 반	-버터 차를 더 첨가

참과	-음용: 여름철 간식 -원료: 볶은 보리가루, 액체버터, 물 -제법: 사발에 보리가루와 액체버터를 넣은 다음, 더운물을 부어 덩어리로 반죽한 것 -특징: 유목민들이 휴대하면서 먹는 음식,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음	고체 상태로 먹기	
뚝배고기	-조리법: 삶는 요리 -식사법: 도마 위에서 자른 후 나눠 잘라먹음 (칼의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	-굽는 요리가 적고 삶는 요리가 주 -칼의 절단 방향이 동일 -무향신료	-손칼을 사용하여 먹음
오츠	-조리법: 삶는 요리 -식사법: 통째로 내어 잘라가면서 먹음 (칼의 방향은 밖에서 안으로 이동)		
조베기	-원료: 묶은 메밀반죽, 돼지고기 육수, 소금 -제법: 추렴을 하고 난 뒤 돼지고기 삶은 육수에 묶게한 메밀반죽을 수저로 떠 넣어 익힌 수제비 -특징: 고기국물 수제비의 일종으로 고기를 넣지 않은 것. 김녕에서는 돛제를 지내고 난 다음 돼지 삶았던 국물에 메밀 조베기를 넣고 끓여 먹었음.	-고기국물에 수제비를 넣고 끓인 음식 -육수에 낱알 곡물을 넣고 죽쭈기 -한그릇 음식	-몽골에서는 밀가루 반죽을 손을 떼어 넣음 -제주에서는 메밀반죽을 수저로 큼직하게 떠 넣음
총가	-원료: 육수, 고기, 수제비, 소금 -제법: 끓는 육수에 손으로 수제비를 떼어 넣고 잘게 썬 고기를 넣어 끓인 수프 -특징: 밀가루 반죽을 주로 사용, 고기국물에 곡물을 넣고 끓인 죽을 랍샤라고 함.		
수애	-원료: 창자, 피, 메밀, 야생부추, 소금 -제법: 창자를 뒤집어 씻은 다음 소(피, 메밀가루, 세우리, 소금의 혼합물)를 채워 고기를 삶을 때 함께 넣어 익힌 것 -특징: 주로 돼지창자와 피를 주재료로 함	-창자에 선지를 채워 넣어 삶아 먹는법 -육지부 순대의 충전물과 다르나, 몽골과 제주 순대의 내용물 중 메밀가루와 부추를 넣는 점이 같음	-몽골에서는 주로 양창자와 양피, 제주에서는 돼지창자와 돈혈을 사용 -게데스는 창자와 선지만을 사용
게데스, 쉼스	-원료: 창자, 피, 메밀, 야생부추, 소금 -제법: 창자를 뒤집어 씻은 다음 소(피, 메밀가루, 세우리, 소금의 혼합물)를 채워 고기를 삶을 때 함께 넣어 익힌 것 -특징: 창자에 가축의 혈액을 넣은 것을 게데스, 창자에 소를 넣은 것을 쉼스라고 함. 여성의 전유 작업		
적	-원료: 돈육, 쇠고기 -제법: 가는 대꼬챙이에 꿰어 직화구이 -특징: 제주음식 적으로 주로 사용	-사각형으로 토막낸 고기를 꼬챙이에 꿰어 굽기	-몽골에서는 야외에서, 제주에서는 실내서 행함
-	-원료: 야외에서 도축한 생고기 -특징: 게르 내부에서는 구이를 하지 않으나, 야외에서 꼬챙이에 꿰어 직화구이를 함.(군사문화)		

<자료출처; 오영주, 「탐라와 몽골 음식문화의 만남」 중 본문을 재구성>

100여 년간 제주의 몽골접촉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불러왔다. 특히 지역이나 지리 등의 생태환경적 차이와 기후 등의 측면에서의 차이점 등으로 인해 먹거리와 식재료 장만, 조리법과 맛내기, 상차림 법과 식사예법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상당한 문화적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IV. 맺음말

본고에서 원의 제주 탐라목마장 설치와 그로 인해 유입된 목축문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탐라목마장 설치로 제주는 한국 최대의 말 명산지가 되었으며, 원의 14개 목장 가운데 중요한 목마장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원이 직접 탐라 목마장을 경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탐라 목마장에 부여한 과도한 徵馬는 당시 고려의 조정과 제주 도민에게는 큰 고통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원을 몰아내고 중국을 지배한 명나라 역시 제주에 많은 양의 貢馬를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사건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수한 목축문화를 가지고 있는 몽골족의 목마기술을 통해 제주의 말 사육규모가 훨씬 증대되었고, 자신들의 실정에 필요한 목마기술을 받아들이고 변형시켜 가면서 나름의 목축문화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탐라목장 설치 이후 당시 제주에 있던 8개의 목장은 조선전기에 제주에 10소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조선의 국립목장을 설치하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에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元史』 『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耽羅紀年』

2. 논문 및 저서

강문규, 「제주 마소의 낙인」, 『교육제주』 138, 제주도교육위원회, 2008.

강영봉, 「제주어와 중세 몽골어 비교연구」, 『탐라문화』 20, 1999.

강영봉, 「제주도와 몽골」, 『한·몽골 교류 천년』, 한몽골교류협회, 1995.

고창석, 「원·명교체기의 제주도-목호란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 2010.

고창석, 「元代の 濟州道 牧場」, 『濟州史學』 1,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1985.

국립제주박물관, 『몽골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2006.

김기선, 『한·몽 문화교류사』, 민속원, 2008.

김동진,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 호적중초에 보이는 본관명 ‘大元’ 가문의 사례분석」, 『지방사와지방문화』 제13권 2호, 2010.

김일우, 「고려·조선시대 외부세력의 제주진입과 제주여성」, 『한국사학보』 32, 고려사학회, 2008.

- 김일우, 『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 서귀포문화원, 2005.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 지역의 우마사육」, 『사학연구』 78, 2005
- 김일우, 『고려후기 제주·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2005, 서울문화사.
- 김천호, 「한몽간의 육식문화비교」, 『한국몽골학회』제4호, 1996.
- 김태능, 『濟州道史論考』, 1982.
- 남도영, 『제주도 목장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03.
- 남도영, 『한국마정사』,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1997.
- 박원길, 「제주습속 중의 몽골적인 요소」, 『제주도연구』 28, 2005.
- 박원길, 『몽골의 문화와 자연』, 두솔문화사, 1996.
- 박환영, 「몽골문화 속의 시간민속 고찰」, 『중앙아시아 연구』 8, 중앙아시아학회, 2003.
- 박환영, 『몽골의 유목문화와 민속읽기』, 민속원, 2005.
- 배숙희, 「원나라의 탐라 통치와 이주,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 76, 중국사학회, 2012.
- 이종수, 「탐라와 몽골의 음식문화 비교연구」, 『탈경계 인문학』 제5권 2호, 2012.
- 장장식, 「몽골 보리야드족 무속의 특징과 전승 문제」, 『한국민속학』 35, 2001.
- 장장식, 「몽골에 가면 초원의 냄새가 난다」, 민속원, 2006.
- 장장식, 「비교문화사의 관점에서 본 한국과 몽골의 민속」, 『몽골학』 30, 몽골학회, 2011.
- 장장식, 『몽골유목민의 삶과 민속』, 민속원, 2005.
- 전경욱·장장식, 「동몽골 보리야드족의 샤머니즘」, 『몽골의 무속과 민속』,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속학연구소, 2001.
- 제주도 문화예술과, 『제주도 제주마』, 시민당, 200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축산사』, 제주특별자치도, 2007.
- 좌혜경, 「제주와 몽고민속의 친연성 연구의 전망」, 『2012 동계한·몽국제학술대회 동북아 유목문화와 제주 문화의 정체성』, 2013.